“맑은 눈, 새로운 삶”…나눔 의술로 희망 밝히다

김안과병원 · 로터스월드, 제31차 캄보디아 의료봉사

6월 15~20일, BWC 아동센터서
첫날 600여 명 진료…20명 수술
강한 햇빛에 익상편 · 백내장 다수
강행군에도 봉사단원 “보람되다”
로터스월드, 통역 · 시설 적극 지원

캄보디아 시엠립=김내영 기자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헤하이 씨(75)는 오토바이를 몰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졌고,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 급기야 왼쪽 눈마저 나빠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런 그에게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BWC(Beautiful World Combodia) 아동센터에서 ‘제31차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에는 손경수 의료봉사단장을 비롯한 김안과병원 의료진 17명, 3년 전부터 의료봉사에 동참해 온 건양사이버대 김용덕 부총장 등 교직원과 학생 14명도 함께했다. 로터스월드 BWC 아동센터의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기본 검진과 통역에 힘을 보탰다.

진료 첫날,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아동센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확한 진단과 전문 장비, 뛰어난 수술 결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캄보디아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은 임시 진료소로 꾸려졌고, 진료 구역은 접수·검사·수술·회복으로 나뉘었다. 익상편과 백내장 수술은 센터 내 마련된 수술실에서 진행됐다. 첫날에만 약 600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20명이 수술을 받았다. 진료를 기다리던 110여 명은 다음 날을 기약하고 돌아갔다.

의료진은 시력 측정, 망막 초음파 검사 등 정밀 진단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세심히 점검했다. 익상편 수술을 받은 플른럼 씨(69)는 “눈이 뿌옇게 흐려져서 고생이 많았다”며 “수술이 금방 끝났고 아프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4년 전 로터스월드에서 의안을 시술받은 뱃소팔 씨(67)는 “의안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긴장하지 않고 웃게 됐다”고 말했다.

3살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4살 때 의안을 받은 14살 소녀 리아는 최근 관리 소홀로 생긴 염증에 손경수 단장으로부터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전해들었다.

진료소 한쪽엔 감기·복통·알레르기 등을 살피는 내과 진료도 운영됐다. 의안 관리법, 안약 사용법 등 생활 밀착형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종일 진료와 수술이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봉사단원들의 얼굴에는 보람이 묻어났다.

김정민 김안과병원 의사는 “멀리서 찾아온 환자가 많다는 말에 놀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년째 봉사활동에 참여 중인 김지혜 원무과 팀원은 “몸은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건양사이버대 부총장도 “봉사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라며 “학교에선 얻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는 원활한 의료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조율과 통역, 시설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현장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환자들에게 덕담도 건넸다.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는 6월 15~20일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에서 ‘제31차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안과 진료 모습.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진료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한 환자들로 북적였다.

성관 스님은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이라며 “젊고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초기 증상을 방치해 평생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한국 의료진이 매년 이곳을 찾아 아픔을 나누고 꾸준히 돌보며 보람된 일을 해 주고 있다”며 “정기적인 방문은 단발성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진다. 많은 캄보디아 주민이 밝은 눈을 선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는 2007년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4만3000여 명을 진료했고, 백내장 등 안과 수술만 2800여 건을 진행했다.

“환자들 환한 미소가 봉사 원동력”

손경수 해외의료봉사단장

2007년부터 의료봉사 참여
치료시기 놓쳐 진료 어려움
“삶에 감사함 가지길” 당부



“지금까지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고, 봉사에 함께한 이들도 소중한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은 울림을 얻길 바랍니다.”

손경수 해외의료봉사단장은 2007년부터 김안과병원 로터스월드와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그는 “매번 무탈하게 봉사를 마치길 기도한다”며 “무엇보다 이곳 환자들이 잘 치료받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현지 의료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의료봉사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대해 “한국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손 단장은 봉사기간 동안 매일 10여 건의 수술을 담당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이 쉽지 않았다. 그는 “이곳 환자들은 안구 조직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수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수술 다음 날 경과를 확인하러 오는 환자들의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볼 때다. 그는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 수보다 봉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로터스월드가 기반이 돼 줬고, 병원 동료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봉사를 통해 스스로 누리고 있는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K뷰티 미용봉사에 웃음꽃 ‘활짝’

건양사이버대 글로벌뷰티학과
현지 주민 200명에 재능 기부

의료봉사 첫날인 6월 15일,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 입구에서 시선을 끄는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졌다. 건양사이버대 글로벌뷰티학과가 현지 주민들을 위해 미용봉사에 나선 것이다.〈사진〉 이날 임옥진 교수를 비롯한 학생 3명은 미용 기술을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로터스월드 미용센터 소속 현지 직원 6명도 봉사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미용봉사는 불과 3시간 만에 200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임옥진 교수는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하다”면서 “지난해 학과 차원의 첫 캄보디아 미용봉사에 이어 의료봉사단과 처음으로 함께 한 이번 미용봉사가 학생들에게 ‘K뷰티를 알린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